중국 섬유 산업 - 무역 마찰과 위엔화 환율 인상으로 업계 재편이 급무

중국의 섬유 산업은 국제 무역 마찰이 심해지고, 인민 위엔화의 환율 시세가 높아지자 대규모의 업계 조정이 불가피한 급무(急務)가 되고 있다.

중국 섬유 산업은 시장 수요에 따라, 여러 외국의 발전 과정을 참고로 하여, 변동 외환 시세 제도에 가급적 빨리 적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또한 섬유 산업의 혁신화와 수준 향상을 빨리 추진하고 첨단 기술을 받아들여 부가 가치와 경제 효율을 높일 필요가 있으므로,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고 경영이 미숙한 어패럴 기업은 폐쇄하게 될 것이다.

새로운 외환 시세 메커니즘에 따라 수출 기업은 자기 기업의 계약 수요에 따라 앞으로의 외환 시세 리스크를 확정하여야 한다. 섬유 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중국의 수출입 기업은 가급적 빨리 대외 무역 계약 내용에 부가 조항을 추가하거나 또는 리스크 헤지(risk hedge) 등의 금융 수단을 써서 외환 시세 리스크를 회피하여야 한다.

과거에 사회 주의 체제에서 국제적인 변동 외환 제도를 전혀 모르던 중국 섬유 산업에게는 평균 이익률이 불과 3~5% 정도이면, 인민 위엔화 환율 시세의 변동은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경쟁력이 있는 일부의 큰 기업들은 수출 제품 구성의 수준을 올림으로써 인민 위엔 절상의 영향을 받은 만큼의 코스트 상승분을 상쇄하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많은 중소 기업들은 생산을 정지하거나 도산의 위기에 부딪치고 있다. 그러므로 중국의

섬유 산업은 업계를 대규모로 다시 편성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되어 있다.

♣